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1월 3일 랜돌프 엘크스 로지에서 개최된 한국전참전용사 감사오찬 행사에서 김 총영사 내외(오른쪽부터 첫째, 넷째), 한순용 노인회장, 장영수 한인회장, 한문수 평통회장, 홍순복 부총영사, 이기호 영사, 나윤정 비서관, 김원중 영사 등이 직접 배식하고 있다

임시 휴간 안내

11월 24일자 임시 휴간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 오찬 감동의 "함께 갑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총영사관은 11월 3일 금요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한식과 미국 식이 혼합된 오찬을 대접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감사오찬에서는 총영사 내외와 영사관 관계자들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들이 음식의 배식을 직접하며 참전용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했다.

보스톤 남쪽 타운 랜돌프 엘크스로지 (Randolph Elks Lodge)에서 개최된 참전용사 감사 오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100여명이 참여해 오찬과 공연을 즐겼다.

김재휘 총영사는 "지난번에 한식으로 대접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 ▶▶3면으로 계속

지지후보 모두 승리, 미셸 우 시장 '보스톤 선거의 여왕'

보스톤 시의원 선거, 보스톤 미셸 우 시장의 승리
우호적인 기존의 시의회에 더욱 미셸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시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4명의 새로운 시의원을 선출, 진보진영 즉 미셸 우 시장 지지 후보들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겼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시의회마저 완벽한 친정체제를 갖추게 됐다.

7일 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9명의 현임 시의원들은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자리

를 수성했다. 리카르도 아로요, 켄드라 라라 등의 예비선거에서 탈락한 공석과 이번 임기로 자진사퇴한 프랭크 베이커, 마이클 플레히티 등 2자리 공석에 미셸 우 후보가 지지하는 4명의 후보가 모두 승리를 거뒀다.

광역구 선거에서는 미셸우 시장의 전 시민조직 디렉터였던 헨리 산타나가 다른 4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11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보스턴을 방문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베릴 로펌에서 미셸 우 시장 및 중국 커뮤니티, 한인사회 2세 네트워크 관련 인물들과 만남을 가졌다

연방 상원 도전 선언한 앤디 김 의원 보스턴 방문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저지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41)이 지난 10월 30일 월요일 보스턴을 방문해 상원의원 출마 소식을 전하며 성원을 부탁하였다. 베릴 로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앤디 김 하원의원은 먼저 미셸 우 시장을 비롯한 중국계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후원회 모임을 가졌으며 두번째 행사는 더 퀸 클럽에서 CKA(한미 위원회)주최로 보스

톤시 연방업무 디렉터 샘 현, 수잔박 브르크라인 타운커미티 부회장과 한미정치력 신장연대 김 한나 변호사 등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후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뉴잉글랜드 법대에 재학중인 김 에스더씨에 따르면 앤디 김 의원은 보스턴 유학생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역경을 딛고 연방 하원의원이 되었다. 앤디 김 의원은 밤메넨데스현 뉴

저지 상원의원이 불법 자금 수수와 비리 등의 혐의로 사퇴를 종용받았음에도 다시 재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분노한 뉴저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히 연방 상원의원 당선을 위해 재정적인 후원과 함께 뉴저지 지역의 친지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기사제보=김성혁)



한미 헬스케어 콜라보 심포지움 15일 개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한미 헬스케어 콜라보 심포지움이 11월 15일 뉴잉글랜드 한인 의사연구회(회장 김영환)의 주관으로 케임브리지 소재 하얏트 리전시 호텔 16층에서 개최된다. 가오 박사, 하버드 의대 김광수 박사가 기조연사로 발표하며, 바이오젠 유전자치료액셀러레이터 부서 부사장인 서정희 박사 등과 한미 주요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해 포럼을 갖는다.

보스턴총영사관, 보건산업진흥원 보스톤지사 (KIDHI Boston), 한의사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유메스 챔메디컬스쿨의 호래유전자치료센터 소장인 광평

1부에서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개최하며, 2부에서는 보스턴과 서울의 협력에 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 오찬 감동의 "함께 갑시다"

▶▶1면에 이어서

키기 위해 이번 랜돌프 엘크스 로지로 오찬 장소를 정했다" 고 선정이 유를 밝혔다.

김 총영사는 "올해 특히 국제적인 갈등 상황에서 70년전에 일어났던 한국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도 기여했다." 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국전 70주년, 한미 동맹 70주년 임을 강조한 김 총영사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진정으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낀다. 매년 베테랑의 날에는 감사 오찬을 한인사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는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 라는 주제하에 이 오찬을 좀더 밀접하고 친근한 방법으로 준비했다. 오늘은 나와 한인사회를 가족으로 여겨달라." 고 직접 음식을 배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 총영사관은 마틴, 나비너스, 채스터 리 주니어, 로버트 코넬, 클리프 스테어스, 퍼버스 맥그레이스, 헤럴드 브라운, 리처드

오니기어(?), 전쟁 중 사망한 아들 드 퍼스나바 씨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

한편 해군공병대(SeaBees)으로 근무했던 케빈 제이콥씨는 한국전 당시 공병에 관한 일화를 소개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공병이 북한군으로부터 기차를 탈취했으며 이 기차에는 기린맥주와 사계가 담겨 있었다고 이들은 부서진 철로를 수리해 가며 인천에 도착했으며 해병들은 북한군인 줄 알고 사격을 했지만 공병대인 것을 알고 이를 멈췄다. 추후 이 술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제이콥씨는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제이콥씨는 한국의 선물 문화에서 배웠다며 총영사 부부에게 공병대 마크로 주조된 감사패를 전달했고, 총영사관에서 늘 참전용사들과 일정을 조율해온 나윤정 비서관에게도 감사 선물을 전달했다. 그는 특히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하자 김 총영사가 "내가 당신에게 가겠다" 고 말했던 일화를 전했다며 이들은 참전용사들은 박수를 보내기



도 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배식대에서 서면서 소

프라노 양나래씨는 아리랑과 더 프레이어 등을 부르고 또한 참전용사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는 안윤경씨의 주도로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시간도가졌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하프마라톤, 5K를 뚫 학생들과 응원 나온 학생들이 함께 했다

MIT 중심 한인 학생들 모임, 하프마라톤 전원 완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MIT 한인 대학원 달리기 모임인 CRRC(Charles River Running Crew) 소속 학생 10여명을 비롯한 하버드, BU 한인 학생들이 11월 5일 케임브리지 찰스강변에서 해프마라톤에 도전해 모두 완주했다.

이번에는 하프마라톤과 5K 두개 부문으로 나뉘서 뛰었다. 하프마라톤은 11 오전 7시 이스트 케임브리지의 퍼스트 스트리트(First st., East Cambridge)에서 출발해 찰스강변을 따라 울스턴 솔저스필드를 돌아 다시 퍼스트 스트리트에서 마라톤을 종료했다.

CRRC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위

해 CRRC는 3개월이 넘게 준비를 해왔다. 많은 동료 학생들이 나와 이들이 뛰는 것을 응원했다.

CRRC의 정민석씨는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고 말하고 “평소 꾸준히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겠다는 것을 배웠다” 고 말했다.

CRRC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찰스강변 주변을 1시간씩 뚫 후 짧게 커피타임을 갖는 달리기 모임이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1시간 뛰는 것 외에도 10K 마라톤, 케임브리지사이드 하프마라톤 등 러닝 관련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bsotonkorean@hotmail.com

제약협회, 과기협 공동 골프대회 성황리에 끝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제약인협회 보스톤지부 (KASBP-Boston)와 재미과학기술자협회-뉴잉글랜드 지부 (KSEA-NE, 과기협)가 공동 주최한 가을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0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허리케인으로 인해 이번 행사는 일주일 연기돼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데븐스에 있는 레드테일 골프 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BW Biomed LLC의 후원 및 재미한인제약인협회 보스톤 지부와 재미과학기술자협



회-뉴잉글랜드 지부 비용 지원을 통해 참가자들은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골프와 친목의 시간을 즐겼다. 골프 대회에는 32명이 참가했으며 뒷풀이 행사에도 추가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화창한 가을날씨에 친목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재미한인제약인협회 보스톤 지부와 재미과학기술자협회-뉴잉글랜드 지부는 앞으로도 매년 가을 골프 대회를 통해 지역 제약 및 과학 기술 산업 종사자들 간의 친목과 교류를 활성화 계획이다.

보스톤산악회 18일 블루힐로 2차 정기 친목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11월 18일 토요일 보스톤 남쪽에 위치한 블루힐 (Blue Hills, 635 feet)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 블루힐을 타기 때문에 A 조의 경우 왕복 4시간 30분 B조는 왕복 4시간 산행을 하는 코스이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물, 간편

중식, 스틱(Trekking Poles), 등이며 회비는 없다. 점심은 산행 후 블루힐 파크장 인근의 피크닉 테이블에서 각자 준비해 온 것을 함께 먹는다.

집결지는 블루힐 레저베이션 (695-821 Hillside St. (parking lot) Milton MA)으로 오전 8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불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산악회는 산행지는 당일 바뀔 수도 있고 날씨 관계로 취소할 수도 있으니 전날 꼭 웹사이트를 참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

기타문의 : 전화 617-780-9588 (들꽃향기)

bostonkorean@hotmail.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보스톤서 의사, 교수 등 상대, 한인 성매매 조직 3명 체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고급아파트를 렌트해서 정치인, 교수, 의사, 정부 고위직, 변호사 등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벌여왔던 한인 성매매 조직원 3명이 체포됐다.

조수아 레비 매사추세츠 연방지검장은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3명의 한인을 고급 성매매조직망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레비 지검장은 이들 3명이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이들의 운전면허, 직장 등 상세한 신상정보와 신용카드번호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청시 레퍼런스까지 받도록 하는 철저한 성매매 망을 관리했다.

또한 월 회원비를 받고 전화 메시지를 통해 소위 '메뉴' 라는 정보를 전달했으며 어떤 여성이 현재 영업활동(open)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여성이 향후에 가능한지(coming soon) 등과 성매매 가격을 전달했다.

보스톤 연방지검에 따르면 이들의 주요 고객들은 의사, 대형 제약회사 임원진, 회계사, 정부고위직, 과학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요 서비스에 따라 시간당 \$350에서 600까지 부과했다. 검찰은 고객들의 명단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레비 지검장은 "현재 이 수사는 진행형이며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 라고 말해 앞으로도 더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다.

수사관들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일제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락 여성들은 대부분이 아시안 여성들이었으며 이 조직은 여성들을 미국내에서 상업적 성매매 행위를 위해 이동시켰다고 지검은 밝혔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케임브리지와 워터타운에 아파트를 렌트해 윤락 행위 장소로 사용했다.

이번에 구속된 한인들은 케임브리지의 이 모씨(여, 41), 캘리포니아 토렌스의 이 모씨(남, 68), 그리고 데담의 이 모씨(남 30) 등이다.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이 모씨는 영주권자, 데담의 이 모씨는 학생비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기관은 이 조직을 설립한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성매매 조직이 사용했던 웹사이트로 현재 국토부가 이 사이트를 폐쇄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들은 본명 또는 가명으로 아파트를 렌트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차량을 제공했으며 또한 식료품 등을 제공했다. 또한 고객들을 관리하고 돈을 수수했다.

레비 보스톤 연방 지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소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으나 계속 수사하겠다고만 밝혔다. 현재 이들이 관리한 손님들 리스트에는 정치인, 교수, 군인, 테크회사 중역,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등 수백명이 등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요원은 약 20여명의 성매매 고객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레비 지검장은 성매매 고객들에 대한 주 및 연방정부 차원의 기소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매스로보틱스 엑셀러레이터, 10개 스타트업 선정 10만달러 지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의 로보틱스 혁신 허브인 매스로보틱스(MassRobotics)가 미국내에서 첫 조건없는 로보틱스 엑셀러레이터를 개최한다.

11월 1일 발표된 매스로보틱스의 엑셀러레이터(MassRobotics Accelerator)는 보스톤 시포트 디스트릭트에 있는 매스로보틱스 본부에서 진행되며 로봇 기업들을 선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적,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이 엑셀러레이터는 13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개인 멘토십 그리고 매스로보틱스 네트워크와 채용접근 허용, 또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실험실도 제공한다. 매스로보틱스는 이번 프로그램의 대가로 참가기업의 주식을 요

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참가기업들에게 10만달러를 지원한다.

이번 엑셀러레이터에 관심있는 스타트업들은 11월 30일까지 지원해야 하며 내년 2월 5일부터 시작한다.

톰 라이든 매스로보틱스 대표는 "로보틱스 산업은 독특하고 특별하며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한 타임의 촉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스타트업들은 제품개발, 고객탐색, 제품 피치, 탑빌딩, 펀드레이징 등의 커리큘럼을 소화하게 된다.

엑셀러레이터 : 단기간에 신생 스타트업들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휴람 코리아 파트너십 부서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보스턴에서 제주43 진상규명·책임 촉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재미43유족회와 간담회 개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방문단이 지난 1일(수) 미국 보스턴에서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회장 양수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 측에서는 양수연 회장, 남일 교장(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성윤 교수(우드로윌슨센터 객원연구원, 터프츠대), 박철민 교수(MIT) 등이 참석했다.

양수연 회장은 그간의 미국에서의 유족회 활동을 소개하고 미국에서 제주43사건을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권 위원장은 “미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재미유족회측과 적극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오늘의 만남이 시작점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은 “미국에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헤아릴 것 같다. 가랑비에 옷 젖듯 차츰차츰 되어 갈 일이다. 미국에서 재미유족회와의 이번 만남이 제주43운동의 역사적인 날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말했다.

남일 교장은 “금년에 우리 학교

에서 제주43희생자를 상징하는 동백꽃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도 매년 동백꽃 그리기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학교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교수는 “미군정 시기 관여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있었던 엄청난 사건인데도 미국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고 제주43유족을 위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수연 회장은 미국에서 제주43은 이념과 당파를 떠나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다가야 함을 분명히 하며 “제주43희생자가 더는 이념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아직도 잘못된 시각으로 제주43을 보는 일부 한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미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005년 워싱턴D.C에서 준비위(양영준 현 부회장)로 시작해 7년간 활동했고 2020년 양수연 회장이 제주43유족회와 기념사업회를 합쳐서 재미제주43희생자유족회기념사업회로 공식 출범시킨 후 매해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가져왔다. 기념사업회와 유족회를 하나로 한만큼 제주43희생자유족이 아니어도 제주43사건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양수연 회장은 또, 인권평화환경비영리단체 ‘월든 코리아’를 설립해 ‘월든 코리아 국제 저널’을 지난해 발행했고 제주43을 알리는 플랫폼으로서 이 학술단체를 활용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43평화재단의 후원으로 미의회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제주43국제 심포지엄을 처음 개최했다. 매해 제주43희생자추모식 개최, 각종 국제 심포지엄과 강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미국 방문은 지난 4월 제주도의회가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방문단과 양수연 회장 등은 간담회 후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방문하여 고위 관료들과 차별 금지,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단은 총 9인으로 제주도의원 한권(위원장), 현길호, 고의숙, 박호형, 양경호 의원과 민간인참여자로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임정현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이상섭 제주도의회 행정관 등이다.

제주 43기념사업회 유족회: 43jeju.com (한글) waldenkorea.org (영문) info@waldenkorea.org



버클리 음대 케이팝 앤 비욘드 행사 이벤트 개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버클리 음대는 2023년 버클리 케이팝앤비욘드(Berklee K-Pop & Beyond.) 행사를 17일 금요일에서 18일 토요일까지 2일에 걸쳐 개최한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뮤즈라이브(Muzlive) 최고 창작 책임자(CCO)이자 전 소니 및 유니버설, 워터뮤직의 임원이었던 누엘 올웨이스 조, 그리고 엑소, TVXQ 등과 작업했던 싱어송라이터 앤드류 최가 게스트 스피커로 참여한다.

토요일 오후엔 합창 크루인 포린 랜즈(Foreign Lands)가 버클리 학생들과 콜라보로 레드룸 카페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또한 버클리의 보스턴콘서버토리의 케이팝 댄서들도 특별 공연무대를 펼친다.

이와 더불어 버클리의 교수가 자 빌보드 차트 탑 순위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인 마이클 맥콜과 이벤트 디렉터이자 프로파서 크삼과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설 교수는 “이번 이벤트는 케

이팝이 단순한 한국의 문화 부산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단합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이벤트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장래 커리어를 향한 영감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버클리 케이팝앤비욘드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케이팝 산업 핵심부에서 일하는 인물들과 만나 향후 장래 커리어를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개발과 실제적인 학급에 초점을 둔 워크숍을 제공하는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버클리측은 보도자료 통해 밝혔다.

학생들은 금요일 밤부터 케이팝 뮤직과 라이브 DJ 퍼포먼스 그리고 버클리 아시안컬처앤퍼포먼스 클럽과 에머슨 칼리지 EKS톤 케이팝 댄스클럽이 주최하는 케이팝 댄스파티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번 이벤트는 CJ문화재단이 후원하며 자세한 행사 정보는 www.kpopandbeyond.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보스톤글로브 독자가 뽑은 가장 인기있는 한국 드라마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글로브가 독자들에게 요청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이지만 충분하게 주목을 받지 못한 작품들을 선정했다. 독자들은 넷플릭스, 훌루 등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중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를 추천했으며 보스톤글로브는 총 81편의 작품을 소개했다.

이중 가장 먼저 소개된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Extraordinary Attorney Woo)>였다. 매튜 길버트 기사는 외국 영화중 한국 드라마가 글로브 독자들 중에서 아주 인기가 높았다고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사랑의 불시착(Crash Landing on you)>, <힘센여자 강남순(Strong Girl Nam-Soon)>, <퀸메이커(Queenmaker)>, <스카이캐슬>등이 비영어권 작품은 대부분 한국 드라마가 휩쓸었다. 그만큼 K드라마의 인기가 넷플릭스 등을 타고 보스톤의 안방에서 미국 관객들과 만나고 있었다.

길버트 기사는 특히 독자들이 이 우영우 드라마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또한 자막으로 대사를 보아야 한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를 추천할 때는 언제나 깊은 인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몇분은 정도 지나면 극에 빠져

는데 우영우 드라마를 보다보면 단 몇초만에 자신이 대사를 읽는 줄도 모르고 극에 빠져들게 된다고 호평을 남겼다.

길버트 기사의 눈으로 보는 한국 드라마는 어떤 것인지 잠시 소개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Extraordinary Attorney Woo)

이 한국 드라마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드라마다. 실력을 갖췄지만 자폐를 앓고 있는 여성이 변호사가 되고 자신의 공포증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강력한 로펌에서의 한계도 알게 된다. 이 드라마는 러브스토리이며 미묘한 아빠와 탄생에 얽힌 비화도 있다. 아주 환상적인 법률적인 이야기를 풀어 가며 심지어 한국사회를 엿볼 수 있는 통찰력도 준다(탈북자들이 범죄 경향이 있고 어리석다고 차별받고 경시 당하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사랑의 불시착(Crash Landing on You)

두 주역의 연기력과 호흡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남측과 북측의 조연들은 정말 웃게 만든다. 일부 독자들은 캡션으로 인해 꺼릴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는 내가 행복함을 맛보고 싶을 때 다시 보고싶은 영화 목록 제일 위에 있다.

힘센여자 강남순(Strong Girl Nam-Soon)

타고난 초인적인 힘을 가진 젊



은 여성이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가지만 범죄 케이스와 휘말리며 진정한 힘을 시험받게 된다. 연기가 뛰어나며 때론 웃기기도 한다

퀸메이커(Queenmaker)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과 뛰어난 연출의 정치적 복수 드라마. 강하고 치열하며 복잡한 여성 연기자들이 인상적이다. 첫회를 주의깊

게 봐야 제대로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스카이캐슬(Sky Castle)

20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이 드라마는 한국의 명문대 입학과정을 다뤘다. 그러나 이는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는 엘리트층에 속하는 부모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드라마는 심리적이고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예술적으로 만들어졌다.

다음은 글로브 원문이다.

https://www.bostonglobe.com/2023/11/03/arts/thrillers-comedies-foreign-imports-british-mysteries-under-the-radar-tv-shows-our-readers-love/?p1=Article_Inline_Text_Link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유럽 비행기 요금 다시 예전처럼 저렴해졌다

많은 항공사 유럽 노선 증편, 저렴한 딜 많아 3월 여행은 1월, 여름 여행은 3월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4년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드디어 적절한 기회가 찾아왔다.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던 비행기 요금이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간 노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봄과 여름 더 많은 노선이 증편될 계획이다. 이 같은 비행노선의 증가는 지난 몇 년간의 가파른 비행기 요금이 안정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바르셀로나 행 비행기표가 \$1,00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저렴한 대안 요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비행기 요금은 팬데믹 이전의 요금으로 돌아갔다. 트립티 트레블러의 비행기 요금의 분석에 따르면 3월 초 보스톤에서 더블린까지 직항 이코노미석의 가격은 최저 \$433로 떨어졌다. 미국에서 파리, 로마, 암스테르담 등의 이코노미석 비행기표는 약 \$500선을 유지하고 있다.

마일리지를 통한 프리미엄 좌석 예약도 내년 봄과 여름에는 더욱 쉬어질 전망이다.

트립티 트레블러에 따르면 보스톤과 뉴욕에서 더블린 직항

젯블루를 포함한 유럽행 비즈니스석은 \$2,000 이하로 예약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여름의 가격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여행 데이터 분석 회사 OAG의 수석분석가 존 그랜트씨는 2022년 여름에는 리벤지 여행으로 인해 찾던 프리미엄 좌석 이용 승객들은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랜트씨는 이제 더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모든 비행편이 싼 것은 아니지만 11월 또는 12월에 내년 유럽 여행의 최고의 가격을 찾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주 트립티 트레블러가 실시한 가격 평가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에서 미국내 도시로의 왕복가격은 지금부터 5월까지 \$500 이하에 형성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직항은 언제나 낮은 것은 아니다. 카약의 데이터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평균 비행기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1% 상승해 \$1,043이다.

호퍼(Hopper)에 따르면 현재 평균 유럽행 왕복 비행기표 가격은 평균 \$655이다. 남유럽의 경우 가격이 특히 비싸다.

아테네의 경우 3월 중순부터 5



월까지 22% 인상됐으며 리스본, 마드리드, 밀란 등의 비행요금도 20% 인상됐다.

호퍼의 경제학자 헤리리 버그에 따르면 비행사들은 대서양을 왕복하는 비행기 노선을 증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 좀더 낮아질 예정이다. 플레이(PLAY), 노스아틀랜틱(Norse Atlantic)을 포함한 저가 항공들도 미국 유럽간 노선 취항을 시작했다.

앞으로 많은 신규 노스탑 노선이 조만간 증편된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2019년 이래 유럽노선을 30%나 늘렸다. 유나이티드는 3월 뉴욕(뉴저지)과 브뤼셀 노선을 1일 2편으로 증가하며, 5월에는 워싱턴 DC와 로마도 1일 2편 출발로 증편한다. 또한 남유럽 노선의 시

즌별 노선 서비스를 예년보다 일찍 시작할 계획이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미네아폴리스, 랠리 더햄 노선의 취항을 6월부터 시작한다. 젯블루는 최근 내년 봄과 여름 보스톤-더블린, 뉴욕-더블린, 에딘버러 노선 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 봄과 여름 유럽행 비행기표는 몇 달 남겨둔 시점에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3월 여행을 계획한다면 1월에 예약하고 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3월 정도에 예약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그렇지만 너무 늦게 사게 되면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름 여

행을 5월에 구입하려 들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방문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 구글과 카약 등을 계속 찾게 되면 충분히 싼 가격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지 않는 경우 방문지의 가격에 경보를 설정해 두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피해야 할 방문지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므로 여파를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이시기를 피하거나 다른 방문지를 택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

hsb@bostonkorea.com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라운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요가씨의 5분요가

하루 10분 여자 아이돌 납작배 만들기 도전! (연령별 코어 운동)



요즘 인기있는 십대 여자 아이돌의 화려한 의상 패션과 스타일 만큼이나 주목 받는 것이 바로 여러여리한 몸매인데요, 단순히 굵거나 단기간 살을 빼려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기 보다는 매일 꾸준한 복근 운동으로 잘록한 허리와 납작배를 유지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녀들처럼 가녀린 몸매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젊게 나이들기 위해서는 코어운동은 필수인데요, 그래서 이번주는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0대부터 7,80대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저자극 복근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해 내 나이만큼 꾸준히 따라해보시면 뱃살 감량은 물론 허리통증 완화에 도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요기읽어주는 여자 hayeon'에서 (DAY4) 십분 요가 | 여자 아이돌.. 편을 찾아 따라하세요.

1. Rolling Back : 등 허리 마사지, 뱃살 감량

1단계 두 손으로 무릎 혹은 허벅지 잡고 발을 바닥에서 떼어 두 엉덩뼈로 중심을 잡습니다.

2단계 내시는 숨에 복부를 수축하며 등을 말



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3단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시면서 다시 올라와주세요.

4단계 호흡과 함께 본인 나이만큼 반복해 주세요^^

TIP! 나이가 많을수록 뱃살은 더 쉽게 찌고 더 빠지기 힘들다는 사실 아시죠?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2. Side Body, Chest, Hamstring Stretch : 허벅지, 옆구리, 어깨 열어주는 스트레칭, 자세교정 효과

1단계 한 다리를 바깥으로 뻗고 반대 무릎은 접어 사진과 같이 앉아서 옆구리를 길게 늘려줍니다.

2단계 내시는 호흡마다 좀더 팔을 길게 뻗어 옆구리의 자극에 집중합니다.

3단계 충분히 스트레칭 한 후 손을 뒤로가



저가 짚고 엉덩이를 들어 몸의 전면을 열어주세요.

4단계 3회 이상 호흡 후 제자리로 돌아와가 숨을 허벅지로 가져가 상체를 숙여 허벅지 뒤와 안쪽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TIP! 무리해서 처음부터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유연성에 맞게 호흡과 함께 안전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3. Leg Drop : 복근 강화, 아랫배 뱃살 감량

1단계 허리를 바닥에 밀착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길게 뻗어주세요.

2단계 내시는 숨에 다리를 조금씩 바닥으로 내립니다.

3단계 45도 정도에서 잠시 흘당했다가 다시 올려서 동작을 반복합니다.

4단계 이 동작도 나이만큼 반복해주는 것을 목표로 도전해봅시다. 아자아자!!

TIP! 동작을 하다 복부에 힘이 풀리면 허리가 바닥에서 뜨기 쉬워요. 허리 다치지 않게 복부의 긴장을 유지합니다.



4. Bridge Pose : 코어 강화, 힙업 효과

1단계 두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날숨에 엉덩이를 올려 교각자세 즉 브릿지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무릎은 골반 너비보다 벌어지지 않게 발바닥을 평행으로 만들고 엷다운을 반복합니다.

3단계 목의 긴장을 풀고 배꼽을 등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코어의 힘에 집중하면서 진행해주세요.

TIP! 척추를 길게 늘린다는 생각으로 엉덩이 꼬리뼈를 무릎쪽으로 보낸다고 상상하면서 엉덩이를 들어올려주세요.



5. Spinal Twist : 허리통증 완화, 쿨다운 스트레칭

1단계 두 무릎을 접어 한쪽으로 보내 트위스트합니다.

2단계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호흡으로 잠시 이완합니다.

3단계 두 방향 모두 진행해주세요.

TIP! 양쪽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지국이 눌러주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접어 허리에서 이어지는 다리와 엉덩이 바깥쪽의 스트레칭도 느껴봅시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s Shrine, Parish of Corpus Christi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임교자를 위한 고려만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주세요:
std@parish@gmail.com
617-551-2711

46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d@parish@gmail.com / std@velurychurch.org
www.facebook.com/stdvelur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깝게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도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현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지지후보 모두 승리, 미셸 우시장 '보스톤 선거의 여왕'

▶▶1면에 이어서
또한 5지역구에서는 우 시장 산하 시 공무원이었던 엔리크 페펜이 승리를 거뒀고 6지역구에서는 우 시장이 지지한 노동 변호사 벤자민 웨버가 당선됐다.

공석이었던 유일한 미셸 우 시장이 개입하지 않은 지역구인 3지역구에서는 존 피츠제럴드가 당선됐다.

지난 여름 특별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더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2년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더칸 후보는 우시장의 선거 자문 및 자금모금을 담당했었다.

선거율이 상당히 높았던 이번 시의원 선거는 사실상 보스톤 정치계의 권력 대결의 성격을 띠었다. 미셸 우 시장이 지지한 진보적인 정치신인과 전 보스톤 시장 마틴 월시 그리고 기존 정치권력의 지지를 받는 중도 후보들이 맞붙었다. 기존 보스톤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안정 보다는 진보 신인들을 선택함으로써 아직도 이 같은 경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제5지역구에서 엔리크 페펜은 보스톤 경찰을 은퇴한 중도성향의 호세 루이스와 맞붙어 신승을 이끌어냈다. 특히 루이스 후보는 마티 월시



2021년 11월 보스톤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미셸 우 보스톤 시장. 지금까지 미셸 우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보스톤 선거의 여왕'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시장이 지지하는 후보였기에 현시장과 전시장의 완력대결로 여겨졌었다.

호세 루이스 후보는 7일 밤 개표가 진행중인 점을 강조하며 패배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인해 미셸 우 시장은 더욱 강력한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타나, 페펜, 웨버, 더칸 등 지지하는 후보가 모두 승리를 거둬 '선거의 여왕'이란 호칭을 받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됐다.

보스톤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수차례 임기를 치렀던 베테랑 시의원 출신 미셸 우 시장은 이미 현재의 시의원들로부터도 강력한 지지세를 구축

하고 있다. 강력한 시장 체제 하에서 보스톤시는 예산안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노숙자 캠프 강제철거 법안도 쉽게 승인을 받았다.

더구나 이번 선거로 인해 그동안 시정에 비판적이었던 좌우 날개, 진보진영에서는 켄드라 라라, 중도 진영에서는 프랭크 베이커 두 의원이 없어지고 완전한 친정체제를 갖추었다.

보스톤 시의회가 좀더 우시장 친화적으로 구성되었느냐는 질문에 미셸 우 시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기에 기존의 시의원을 비롯한 새로운 시의원들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

한 새로운 시의원들이 이미 보스톤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할 일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역구 시의원에는 루시 루이전(Ruthzee Louijeune.), 줄리아 메이저, 에린 퍼피 등의 순으로 당선됐다. 이스트 보스톤에서는 가브리엘라 콜레타, 사우스 보스톤에서는 에드 플린, 도체스터에서는 브라이언 워렐 시의원이 각각 도전자없이 재당선 됐다. 또한 타니아 퍼네이 드스앤더슨은 락스베리에서, 더칸은 비컨힐에서, 그리고 리즈 브레던은 올스턴 브라이언에서 각각 당선됐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1면합뉴스 | 1미션형 회원사 | 1세원연 회원사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인플레이션 진정에 연준 기여분은 몇점?... "후한 점수 못 줘"

WSJ "저축·소비·투자·GDP에 영향 미미... 뒤늦게 수요 타격할 우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끼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내려갔지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연준 조치와 인플레이션 하락 간에 분명한 관련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것은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온 덕분이며 이는 연준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또 단순화해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내려온 만큼 연준 덕분이 아니며, 연준 정책은 기껏해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것을 막는 정도였다는 것이 WSJ의 진단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6월 고점 9.1%에서 줄곧 내려와 6월 3.0%를 찍었고, 9월에는 3.7%를 기록한 바 있다.

연준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0.2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공격적으로 인상해 지난 7월 22년 만에 최고인 5.5%까지 끌어올렸고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WSJ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론상 수요를 끌어내리고 고용·경제활동 등의 둔화를 통해 물가 압력을 낮춘

다고 설명했다.

또 고금리는 저축을 늘리고 대출을 줄이는 한편 수요·투자를 줄인다면, 실제와 비교해 항목별로 연준 정책의 기여분을 점수로 매겼다.

WSJ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저축·소비·투자·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0점으로 봤고 고용(1점)·대출(2점)·주택시장(4점) 순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그 근거는 9월 개인 저축률이 3.4%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처음 이뤄졌던 지난해 3월과 같고, 가계 소비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또 민간의 비거주용 실질 투자는 정부 보조금에 따른 공장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까지만 해도 분기 늘어났고,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9%(연율)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실업률은 여전히 완전고용을 뜻하는 4% 아래에 머물고 있고, 전체 용자 규모(금융 부문 제외)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

그나마 주택시장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신규 모기지 발급 건수가 1995년 이후 최저로 떨어진 상태다.

WSJ은 금리 인상으로 취약한 가계·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대부분 모기지가 30년 만기 고정금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수의 가계·기업이 금리 인상의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인플레이션 진정은 주로 상품·노동 공급 개선 덕분이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견해가 나온다면, 연준이 노동 참여나 이민 등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PGIM 채권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다립 싱은 "올해 인플레이션 진전의 대부분은 공급 측면의 개선 덕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약달러로 수입 물가 상승과 제조업 경기 강세가 발생하고, 주택시장과 소비 지표도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연구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을 2%에 가깝게 고정할 연

준의 신뢰성에 공이 있다면서 "고정 효과가 작다면 더 높고 물리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WSJ은 "금리가 인플레이션 하락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영향

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 경제에 큰 위험"이라면서 "평소보다 더 시차를 두고 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난 뒤 수요를 타격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국연준 이사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전망 바꿀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두 개의 전쟁을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이 미국의 경제 전망을 바꿀 수 있다고 리사 룩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룩 이사는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아일랜드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

에서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며, 현재 경제 성장이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 사이에서 매우 침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적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이미 침체한 유럽과 중국의 성장을 약화하고 그 여파가 미국 경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소중한 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자동차 업계, 예상 밑도는 성장세에 전기차 투자 연기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만...블룸버그 "9~17일 승인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이봉석 기자= 자동차 회사들이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연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차량 서비스업체 폭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7~9월 미국에서 팔린 신차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에서 늘어났다.

또 올해 미국인의 전기차 구매 규모는 100만대를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판매가 자동차의 다른 분야에 비해 성장세가 빠르긴 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메리 배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우리의 모든 전기차 미래에 대한 헌신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도 "시장이 다소 순탄하지 않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테슬라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당 가격을 수천 달러 인하해야 했다.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도 몇 달 전과 비교해 둔화하고 있다.

일부 인기 모델의 판매가 줄어드는 점도 주목된다.

포드는 머스탱 마하-E의 10월 판매량이 작년보다 10%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새 모델 출시와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최근 GM과 포드, 테슬라가 잇달아 판매 감소와 경기 침체 징후를 거론하며 투자를 늦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GM의 경우 쉐보레 이쿼녹스 전기차 모델의 출시를 몇 달째 늦추고 있다.

앞서 GM과 포드는 전기차와 배터리, 기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개조하고 새 공장을 짓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매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구매 능력이 떨어진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9월 미국 전기차 평균 구입가는 5만1천달러(약 6천680만원)였는데,



반도체 웨이퍼

작년 6만5천달러에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고금리로 자동차 할부 금액이 올라간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

이미 차량을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충전시설을 찾기 어려운 점이 골칫거리다.

투자 연기는 전기차를 밀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타격이다.

또 전기차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이 정책 입안자들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anfour@yna.co.kr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3만6천달러 넘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18개월 만에 장중 3만6천달러(4천724만원)도 넘어섰다.

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오후 8시 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2% 오른 3만5천840달러(4천701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3만6천100달러 대까지 상승하며 한때 3만6천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3만6천달러 돌파는 2022년 5월 6일 이후 18개월 만이

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에는 늦어도 내년 1분기 전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당국의 현물 ETF 승인이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르면 9월부터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할 작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노란봉투법' 왜 맞서나... "손배폭탄 방지" vs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개정안, '노조 손배책임' 제한하고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넓혀 노동계·야당 "노동권 보호" vs 경영계·여당 "산업현장 대혼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사실상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정, 노사 갈등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 '사용자 범위·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인지가 쟁점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데,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힌다는 뜻이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3조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적법한' 쟁의행위 등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인데, 개정안은 여기에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불법 파업 등으로 손배 판결이 내려질 때 각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노동계가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19,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 노사·여야 입장 첨예... "노동권 보장" vs "파업만능주의"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정과 여야의 갈등은 극명히 엇갈린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손배폭탄 방지법'으로 부르며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하청 노동자

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이윤은 독점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지하는 '진짜 사장'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무권리상태에 방치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대법원이 이미 2010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하는 등 최근의 판례들에 비춰봐도 노조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 경영계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오히려 교섭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나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손배 제한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mihye@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NOV. 10th - NOV. 16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ARMY STEW: COMFORT FOOD FOR ALL

Let's honor Veterans on their day with this symbolic dish that emerged from their sacrifice to South Korea.

재향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운날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부대찌개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Korean Pear 한국 배 PRODUCT OF KOREA \$29.99 BOX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California Persimmon 캘리포니아 단감 BOX \$19.9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99 FOR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NEW CRO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LB \$12.99	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LB \$3.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3.49
Frozen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FAMILY PACK/LB \$5.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7.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Pollock (Dried Pollock) 통통배 코다리 1.5 LB/PKG \$6.99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6-30'S/LB \$4.99
Frozen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LB \$3.99	Frozen Branzino 브란지노 600-800'S/LB \$5.99
TONGTONGBAY Frozen Mixed Fish Cakes 통통배 모듬어묵 1.1 LB/PKG \$3.99	Jeju Live Fluke from Jeju 제주산 활광어 PRODUCT OF KOREA/LB \$21.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SMART CARD MEMBER ONLY

NONGSHIM Chapagetti Jjajang Noodles 농심 짜파게티 \$16.99 4.5 OZ X 4 EA/PKG	PULMUONE Jjamppong Noodle Soup Kit 풀무원 직화 짬뽕 \$5.99 12.8 OZ
GOLD PLUM Chinkiang Vinegar 골드플럼 발효식초 18.6 FL OZ \$3.99	GREENHAT Organic Whole Black Garlic 그린햇 유기농 흑마늘 1.1 LB \$11.99 USDA ORGANIC

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쌀 옐로우 15 LB \$14.99 햅쌀 NEW CROP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3.99	ORGANIC FARM Organic Brown Rice 유기농장 100% 유기농 안심잡곡 현미 15 LB \$38.99 USDA ORGANIC	CHUNGJUNGONE O'Food Bap Cooked White Rice 청정원 오후드 즉석밥 7.04 OZ X 12 EA BOX \$11.99	JONGGA Kimchi Ramen 종가집 김치라면 4.93 OZ X 6 BOWLS BOX \$8.99
JINGA Porridge 진가 죽 VEGETABLE/PUMPKIN/ABALONE /SPICY SEAFOOD/SWEET BEAN 17.6 OZ \$3.99	HAI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1.1 LB \$1.99	OTTOGI Natto 제주콩으로 만든 생넛도 5.92 OZ \$4.99	Q1 Sweet Korean Pancake Mix Original 큐원 찰호떡 믹스 1.21 LB \$3.99	SAMLIP Oven-Baked Donuts 삼립 오븐에 구운 도넛 14.1 OZ (10 EA/PKG) \$5.99
HAITAI Ivy Cracker 해태 아이비 크래커 ORIGINAL/MORE DEEP CHEESE 9.52 OZ \$3.99	ORION Pocachip Snack 오리온 포카칩 ORIGINAL/ONION 4.79-4.83 OZ 2\$5 FOR	KüHAUS Electric Separable Kitchen Blender 쿠하우스 분리형 전기 만능 믹서기 1.2 L JAR + 0.2 L CHOPPER \$39.99 → \$29.99 WHITE EA	PAWIE Antibacterial Cutting Board 파비에 솔레지엔 항균 양면 도마 RECTANGLE (17 X 39 CM) ROUND (25 X 35 CM) \$6.49 → \$3.99 EA	WANGTA Toothbrush 왕타 칫솔 (파스텔 컬러 MIX) GOLD/BLACK \$7.99 → \$5.99 5 PCS PKG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s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w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bostonpremierrealty.com
--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혜연 김 617.271.2037 daehyeon@bostonpremierrealty.com	 율민 권 978.694.2043 yulmin@bostonpremierrealty.com	 니계 박 617.447.0501 nigye@bostonpremierrealty.com	 대준 조 617.780.7839 daejun@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김 978.886.3248 jina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935.3397 eunjung1@gmail.com
 세라 김 617.358.6787 seorakim@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08.6973 hyeonkim@gmail.com	 마사 김 213.503.0397 masan@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김 413.607.1402 mikiokid@gmail.com	 선광환 617.815.3268 sunghwan@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민 617.877.0387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제준 781.833.3412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현숙 김 781.899.1214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지은 김 617.515.1162 jieun@bostonpremierrealty.com	 이제준 김 617.645.6728 eejeon@bostonpremierrealty.com	 희민 민 601.841.5102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652 nancywang1988@gmail.com	 Shirley Zhao 867.20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u 617.936.2715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622.8979 xiang777@gmail.com	 Lu Jiang 248.448.0117 lujiang1@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5 mish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6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빙센트 박 201.446.8995 vt11@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68.0409 jeikee@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6434 isungjin@bostonpremierrealty.com	 Nimi Bolanger 413.257.1686 nimibolanger@gmail.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비명계, 잇단 탈당 가능성 시사...이재명에 힘지 출마 요구도

이상민·이원욱 이어 조응천 "사당화에 질식할 지경...12월까지도 노력 다하겠다" 김두관도 지도부 힘지 출마론...'친명 좌장' 정성호 "정치 그만두라는 소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연일 공천 불이익 우려를 제기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비명 공천 학살'이 이뤄질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합류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조응천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탈당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며 "저는 민물고기라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소금물이 돼 숨 쉴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후 당은 사당화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당 조직에 현 대표의 친위대를 자초하는 원외 조직이 생겨 그들이 다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거취 결정의 '마지노선'에 대해서 "12월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신당과 관련해 "최근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다"고 우려하면서도, 합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묻자 "완전히 아니다"는 아니고, 그런 것은 걸리는 점"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일 신당 합류와 관련해 "가능성은 어느 경우나 열려있다"면서 한 달 내 거취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욱 의원도 전날 "도저히 민주당은 개선해선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를 포함해서"라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힘지 출마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득권자의 힘지 출마로 가는 것이 맞다. 기득권자 중에 민주당의 가장 핵심은 이 대표"라며 "사당화 이야기를 듣는 이 대표가 먼저 힘지 출마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두관 의원 역시 여당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힘지 출마론'에 맞춰 지도부 힘지 출마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부터 힘지 출마를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며 "사병보고 나가라고 하면 되나. 장수들이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에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힘지로 보

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 서라. '친명 안방, 비명 힘지'로 방향을 잡았다간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명 주류 쪽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선을 그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

의 뜻과 관계없이 여기저기 출마시킨다고 하는 것은 선거에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힘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선택도 한다고 했으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힘지 출마하라는 건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라고 했다.

ses@yna.co.kr

이준석, 신당 창당시 대구 출마 질문에 "회피하지 않겠다"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9일 "국민의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야성(대구·경북)을 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시 내년 총선 대구 출마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대구에 출마한다면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도전일 것"이라며 "만약 (대구 출마를) 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다른 선택'은 제15대 총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갈라선 뒤 김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민당이 대구 전체 13개 의석 중 2석을 확보하는데 그친 반면 자민련이 8석을 석권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 60대, 70대가 돼서 윤석열 정부를 많이 사랑해주는 분들이 30대, 40대 때 했던 선택"이라며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psipsj@yna.co.kr

김기현 "혐오·분열의 언어로는 지지 못얻어"...이준석 겨냥했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9일 "혐오, 비난, 분열의 언어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오랜 숙성처럼 정계 개편에 관한 보도가 조금씩 흘러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외가 쪽, 친가 쪽 구분 짓기보다 모두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당을 위한 진지한 고민, 나라를 위한 진정성 있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정계 개편 보도'는 최근 12월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관련 기사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혐오, 비난, 분열의 언어' 역시 이 전 대표가 당 내부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을 두고 한 표현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도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를 향해 신랄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몽둥이찜질로 만든 당 대표가 하는 걸 보면, 몽둥이찜질로 낙하산 내리꽂아봤자 상태 유지 안 된다"며 여권 주류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 이후 야당 대표의 구속도 못 하고 만만한 여당 내부만 몽둥이 찜질하는 상황이다. 이런 걸 내부 총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내부 총질' 지적을 비꼰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또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 활동에 대해 "한게 없는데 뭘 평가하나. 말 잔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선 "학교폭력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측 대리인 같은 사람이 와서 '나는 다 괜찮다, 이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당이 충분한 지지를 받아서 영남에서도 많은 분이 출마해서 같이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 지역적 기반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골프와 인생 11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13번홀 : 인생 그리고 실력과 위기 대처능력

인생에 있어서도 골프와 마찬가지로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실력있는 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골프 싱글이 되기 위해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컨설팅회사에서 인터넷벤처들이 모여 만든 정보통신부 산하의 비영리협회로 자리를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정통부로부터 기업 정보화에 대한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신생 협회로서 이번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되어야 회원사에게도 면이 서고 무엇보다 정통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나였지만 "그저 컨설팅 회사에서 매년 작성하던 컨설팅 기획서처럼 작성하면 되겠지 뭐" 하는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고 하루 반나절 만에 똑딱 기획서를 작성했다. 마치 골프에서 지형지물,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모든 조건을 세심히 살피고 샷을 준비하는 싱글골퍼와 다르게 그저 대충 치면 어디까지는 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샷을 날리는 '나' 처럼 그저 현란한 문구와 눈에 확 띄는 몇개의 도식만을 이용한 껍데기 기획서에 불과했다.

하루 반나절만에 똑딱 만든 어설픈 기획서를 가지고 정통부 담당 과장과의 회의를 진행한다. 이견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열심히 설을 풀어본다. 하지만 정통부 과장이 땅따먹기로 오른 자리도 아니고 헛점 투성이인 기획서를 보고 하나 하나 지적하기 시작한다. "다 좋은데 이번과 같은 사업의 경험이 있는지요? 또



한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잘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사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서 다시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티샷에서 OB가 난 것과 같은 위기 봉착이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뿐더러 과장과의 첫 대면부터 신뢰를 잃은 것 같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정통부 과장과의 회의결과를 내 직속 상관인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작성해서 보고 하려는데요?", "우리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정부사업 경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본부장이 기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지시한다. "지금 이번 일에 참가시킬 만한 회원사 몇 개를 추려 실무자들 회의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그 실무자들에게 이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알아보고 또한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화

경험이나 사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서술하라고 하세요." "그런 후 회원사별 사례와 경험을 이번 기획서에 포함시켜 과장에게 다시 보고하도록 하죠." 그런 지시를 내리고는 정통부 과장에게 바로 전화를 연결한다. "아! 과장님 오늘 시간 되시나요? 저녁이나 함께하시죠. 드릴 말씀도 있고 오랫동안 편하게 과장님과 술 한잔 하고 싶네요..." 과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는 서둘러 약속장소로 이동 준비를 한다. "어이 박부장! 같이 가자..."

본부장의 포스에서 짬밥과 경륜이 함께 묻어 나온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몸에 밴 듯 하다. "대충 이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역시 계급장은 가위, 바위, 보로 따내는 것이 아닌가 보다.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을 최대한으로 점검하고 이를 총동원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업무 외적인 인간적 측면까지 고려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다시말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경험과 위기대처 능력이 실력이고 그 실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직장인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오간다. "부서장이 사원보다 괜히 월급을 더 받는 게 아니다." 한 단체나 기업의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경륜을 쌓아야만 가능하다. 또한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 위기대처를 위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실력' 이고 이 실력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훈련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마치 골프 싱글이 되기 위해 매일 연습장에서 훈련하고 골프 동영상도 수도 없이 돌려보며 시간 될 때 마다 필드에 나가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처럼...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2023.

11.12.

~ 2024.

02.10.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第22代国会議員在外選挙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投票するには申告・申請する必要があります。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国外不在者申告期間

2023.11.12.~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在外選挙人(変更)登録申請期間

2024.02.10. 까지

2024.02.10. まで

투표기간

投票期間

2024.03.27.~04.01.

매일 毎日 08:00~17:00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期間中、公館ごとに日時が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신고·등록신청 방법

申告・登録申請方法

인터넷(ova.nec.go.kr)

インターネット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申告・登録申請ページへ

ova.nec.go.kr



공관방문·순회접수

公館訪問・巡回受付

우편·전자우편

郵便・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 該当の公館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中央選挙管理委員会在外選挙ホームページ(ok.nec.go.kr)、外交部ホームページ(mofa.go.kr)、
在外同胞庁ホームページ(oka.go.kr)で選挙情報などの確認ができます。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62) 보장되는 연금의 진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 이민을 왔다.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이 밤낮으로 일만 열심히 했고 아이들이 장성하고 돌아보니 노후 준비 없이 세월만 훌쩍 지나갔다. 평생 일한 대가로 은퇴자산은 조금 마련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뚜렷한 방법이 없다.

은퇴 후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하는 소중한 목돈이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투자가 안전(?)하면서 돈이 불어나며 특히 부부가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생활비가 보장되는 투자를 생각한다. 이것이 투자자 대부분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금융회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높은 이자로 평생 생활비를 보장' 한다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것이 어뉴이티(Annuity)이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주식투자자로 망했다는 소식은 주위에서 쉽게 접한다. 이런 이유로 선생님, 군인,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대부분 부러워한다. 원금이 보장되고 생활

비가 나온다는 말이 매우 유혹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중한 은퇴자금을 자세히 검토해 보지 않고 투자한다. 어뉴이티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목돈을 보험회사에 주고 연금으로 받았기에 부부가 하늘나라로 가면 남아있는 돈이 없을 수 있다. 자식들에게 상속할 돈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제대로 투자하면 수익으로 연금처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자식에게 목돈을 남길 수 있다.

*보험상품을 파는 판매인은 어뉴이티에 부과되는 모든 경비를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판매인이 어뉴이티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뉴이티 수수료나 각종 경비에 대해서는 흐릿하게 대강 넘어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분명히 없음을 투자자는 인식해야 한다.

*돈의 유동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은퇴자 혹은 배우자의 의료비, 집 수선, 자동차

등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은 것을 결정한 어뉴이티(Annuitization)는 번복할 수 없다.

*연금은 물가상승이 큰 문제가 된다. 물가가 요즘 8%까지 상승했는데 연금으로 받는 액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의 값어치는 매년 적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목돈을 보험회사에 주고 매달 나오는 연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한다. 보험회사나 어뉴이티 종류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다를 것이다. 목돈에서 연금 액수와 수익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같은 목돈에서 연금 \$3,000은 \$2,500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Should you retire to get a larger lump sum on your pension, Anne Tergesen, WSJ, October 31, 2022)에서 발표한 은퇴자금 숫자를 인용해서 알아본다. 은퇴하는 직장인(58세)이 목돈 \$540,000을 연금으로 받기로 하면 매달 \$2,150이다. 투자자가 목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2.4% 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85살까지

매달 연금으로 \$2,150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건강해서 95살 살아서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목돈의 투자가 4% 수익률 유지하면 \$2,150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10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2.5% 그리고 지난 100년 연평균은 약 9.7%라는 것을 염두하고 계산해 볼 수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 라고 언급했다. 2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투자하는 데 안전하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혹은 더 많은 값을 지불할 수 있다. 미국 투자기관(SEC, FINAR & NASAA)에서도 어뉴이티 투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수시로 경고한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식들 키우며 정신없이 산이던 일 세대,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서 원금이 보장되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음(Too good to be true)' 을 투자자는 알아야 한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와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사부의 의견을 구하자, 이에 이사부는 "폐하의 집안일에 어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아들의 혼사임에도 세종을 전군殿君으로만 대하며 칭신稱臣의 자세를 유지했다. 세종이 미실을 가장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지소는 탐탁치 않았다. 이는 미실이 박영실의 외손녀이기 때문이었다. 박영실과 옥진은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서 묘도가 태어났으며, 묘도가 2세 풍월주미진부와 혼인하여 미실을 낳았다. 지소는 첫 남편(숙부이기도 하다) 임종이 조졸하자 아버지 법흥왕의 명으로 박영실을 계부繼夫로 맞이하였다. 그런데 지소는 영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흥왕의 명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왕위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 정적政敵이었다. 게다가 미실은 대원신통의 인맥姻脈이기에, 지소 자신이 종주宗主인 진골정통과 왕실에 왕비나 후궁을 공급하는 인통姻統의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이사부는 지소태후에게 박영실은 법흥왕의 총신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세종이 미실을 좋아한다면 사도왕후(진흥왕의 왕비이며,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이다. 즉 미실의 이모이다)도 위로할 수 있으니 적합하다고 말했다.

마침내 지소태후는 미실로 하여금 입궁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미실은 첫사랑 사다함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세종에게로 갔다.

입궁한 미실은 세종전군을 교태로 섬기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통하였고, 세종은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어 기동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지소태후는 세종이 감당하지 못할까 크게 염려하였다.

그때 지소는 자신의 딸인 숙명공주를 진흥왕의 비로 삼으려는 계책을 꾸미고 있었다(숙명공주의 부모는 이사부와 지소이고, 진흥왕의 부모는 임종과 지소이다). 즉 사도왕후를 폐하고 숙명을 왕후로 삼아 자신의 인통姻統인 진골정통으로 인맥姻脈을 이으려고 하였다. 이 계책의 비밀을 입수한 미실은 이모인 사도왕후에게 고했다. 그러자 사도왕후는 진흥왕에게 호소했고, 진흥왕은 원래 사도를 총애하였지만, 모후의 의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왕후를 더욱 사랑하였다. 지소는 자신이 세운 계책이 무위로 끝나자 미실을 입궁시킨 걸 후회하였다. 미실을 불러서 "너로 하여금 전군을 받들게 한 것은 단지 옷을 드리고 음식을 받드는 것이다. 그런데 감히 사사로이 색사色事로 전군의 성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고 꾸짖으며 미실에게 출궁을 명하였다.

그러나 미실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궁궐을 나와서 곧장 옛 연인 사다함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뜻다한 사랑을 나누며 심지어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지소태후는 기어이 자신의 계획대로 아들 진흥왕과 딸 숙명공주를 혼인시켜 숙명을 왕후로 삼았지만, 진흥왕은 숙명을(부인으로) 좋아하지 않았고, 사도왕후를 더욱 사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왕과 숙명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가 정숙태자貞肅太子인데 생몰년은 미상이며 조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도왕후의 장남 동륜이 566년에 태자에 책봉되었다(정숙태자가 사망하였기에 동륜이 태자에 책봉되었다는 설과 정숙태자가 어머니 숙명의 폐위로 인해 함께 폐위되었다는 설이 있다). 한편 진흥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 숙명은 당시 궁궐에 들어와서 지소태후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화랑을 사랑하였다.

이화랑은 초대 풍월주 위화랑의 아들인데, 12살에 3세 풍월주 모랑毛郞의 부제에 발탁되었다. 피부가 옥과 같이 부드럽고 미소 짓는 눈은 꽃과 같았으며, 음률과 문장을 잘했다. 수려한 젊은 이화랑은 문무를 겸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소태후가 궁으로 불러 딸들인 황화黃華, 송화松花, 숙명공주叔明公主와 어울리게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NOV. 9TH - NOV. 23RD, 2023

 **SAMLIP Hojjimi** 
Steamed Bun Gift Pack

Free Hojjimi Steamer
+Sweet Red Bean Buns
49.6 OZ(4EA+4EA/PKG X 2 PACKS)

\$11.99



Sweet red beans Flavor



Do not microwave
전자렌지 사용x

***Until Supplies Last**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정신병동에도' PD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느끼며 위로받길"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정신병동에 입원해있는 대사 없는 단역 캐릭터들의 프로필도 상세하게 정리했어요. 환자 히스토리와 차팅 기록 등을 모으니 책 한 권 분량이었죠."

지난 3일 공개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이하 '정신병동에도')는 커튼이 없어서 아침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한다.

알몸으로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했다는 조울증 환자, 버거운 현실을 견디지 못해 게임 속 세계로 숨어버린 망상증 환자, 남을 챙기느라 자신을 잃은 지 오래인 우울증 환자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담백하게 담아냈다.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정신병동에도' 이재규 PD는 "선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그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면이 있다는 시선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며 "지나치게 따뜻해서 동화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그런 시선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신병동에도'는 이 PD의 전작

지금 우리 학교는(이하 '지우학')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작품이다.

좀비 떼와의 피 튀기는 사투를 그려낸 넷플릭스 히트작 '지우학'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날카로운 현실 고발 메시지 등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PD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덜어내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우리 작품이 마치 썩개떡 같다고 생각했어요. 마카롱 같은 디저트 옆에 있으면 사실 손이 잘 안 가는데, 막상 먹어보면 정말 맛있거든요. 몸에도 훨씬 좋고요."

정신병은 '현대인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아직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PD는 "작품을 만들면서 수도꼭지 열린 것처럼 운적도 많았다"며 "개인적으로 많이 치유 받은 만큼, 사람들도 '세상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를 느끼면서 위로받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저도 우울증이랑 공황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는데, 사실이니까요. (웃음) 공황장애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비슷한 고통을 겪어 봤기에 이야기에 더 공감됐죠."

이 PD는 '불안하다', '우울하다' 등의 말로는 쉽게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병을 시각적인 연출로 묘사한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행위도 고역처럼 느껴지는 우울증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깊게 빠져드는 늪에 빠져드는 듯한 연출로,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공황장애는 거대한 수조에서 숨이 막혀오는 듯한 연출로 표현해냈다.

이 PD는 "회차마다 적어도 한두 개 장면에서 이런 시각적인 연출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60~70% 정도가 실제 반영된 것 같다. 편집 과정에서 덜어낸 장면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루기 조심스러운 소재인 만큼, 작은 디테일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았다.

전문적인 의학 장면을 촬영할 때



는 현장에 실제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섭외해 자문했고, 역할 몰입도를 돕기 위해 대사가 없는 단역 배우들에게도 맡은 바역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제공했다.

애정을 쏟아부은 작품인 만큼, 시즌에 대한 욕심도 있다.

이 PD는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다"며 "섭식장애, 리플

리증후군 등 아직 다루지 못한 병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다.

"정신 질환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받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작품을 통해 자신의 병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주변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coup@yna.co.kr

11월 12일 - 11월 1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가랑비에 옷 젖듯이</p> <p>● 운수: 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앞에 일에만 신경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자기 조절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가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하겠습니까. 96, 84, 72, 60, 48, 36년생은 15, 18일 길일. 12, 17일 주의.</p>	<p>소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p> <p>● 운수: 후회한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 금전: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3, 14일 길일. 12, 18일 주의.</p>	<p>범띠 큰 행복감을 줄</p> <p>● 운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 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치유도 될 것입니다. ● 금전: 직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6일 주의.</p>
<p>토끼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p> <p>● 운수: 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모욕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3, 16일 길일. 14, 18일 주의.</p>	<p>용띠 수월하게 진행될</p> <p>● 운수: 서로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계약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본 줄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4, 16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뱀띠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p> <p>● 운수: 주위 사람의 말을 귀담아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 애정: 특별한 사이가 아닌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편했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5, 17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말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p> <p>● 운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 금전: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음직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애정: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p>	<p>양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p> <p>● 운수: 가벼운 우발사건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 금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 너무 완벽한 것도 자신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p>	<p>원숭이띠 원하는 방향으로</p> <p>● 운수: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불같이 뜨거운 열병 같은 사랑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닭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p> <p>● 운수: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 해도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해 서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8일 길일. 14, 17일 주의.</p>	<p>개띠 그저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p> <p>● 운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전: 그저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억울하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17일 길일. 15, 18일 주의.</p>	<p>돼지띠 겸손하게 처신해야</p> <p>● 운수: 진심으로 내 편에 서서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금전: 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 애정: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8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지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볼거리 화려하지만, 非마블팬에게도 먹힐까...영화 '더 마블스'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최전성기 시절 마블 스튜디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볼거리와 폭넓은 대중성이었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블랙 위도우 등 인기 캐릭터로 구성된 히어로 팀 '어벤져스' 시리즈가 대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마블은 '어벤져스' 마지막 편인 '엔드 게임'(2019)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상지와 텐 링즈의 전설'·'이터널스'(2021), '토르: 러브 앤 썬더'·'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2022),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매니아'(2023) 등이 기대 이하의 흥행 성적을 거뒀다.

마블 영화의 위기에는 많은 이유가 거론되지만, 갈수록 관객층이 좁아진다는 지적은 줄곧 따라다녔다.

마블은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불리는 세계관을 구축해 이른바 '코어 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한 작품을 감상하려면 전편 뿐만 아니라 다른 마블 영화까지 챙겨봐야 한다는 약점도 상존했다.

디즈니+가 MCU 히어로 시리즈를 쏟아낸 2021년부터는 '비(非) 마블팬'이 다가가기엔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이전 이야기나 등장인물의 능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시리즈를 대강이나마 공부해야 하는 수준이 됐다.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연출한 '캡틴 마블'(2019)의 속편 '더 마블스'도 마블의 명과 암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눈을 땀 수 없게 만드는 액션 장면과 입이 딱 벌어지는 시각특수효과(VFX)는 오락 영화를 찾는 관객의 흥미를 당기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마블 코어 팬이 아닌 관객에게



는 영화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1편을 본 상태더라도 캐릭터와 직전 이야기 등 기본적인 설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화는 캡틴 마블(브리 라슨 분)이 초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모니카 램보(테요나 패리스), 카말라 칸(이만 벨라니)과 위치가 바뀌는 위기에 빠지면서 이들과 새로운 팀플레이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캡틴 마블을 제외한 나머지 히어로 두명은 영화로는 처음 보는 얼굴이다. 모니카는 '캡틴 마블'에서 아역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성인 역할로는 시리즈 '완다비전'에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카말라 역시 시리즈 '미즈 마블'을 통해 MCU에 합류했다. 두 시리즈를 보지 않았다면 이들이 무슨 초능력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히어로가 됐는지 알기 어렵다.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더 마블스'의 시간적 배경은 시리즈 '시크릿 인베이션' 직후로, 해당 시리즈를 보지 않았다면 영화 속 일부 이야기가 뜬금없게 다가올 수 있다. 플래시백 형태로 주인공들의 서사를 잠시 비추긴 하지만, 이 정도로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진다.

결국 '더 마블스'를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무려 네 편의 영화와 시리즈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물론 MCU 작품을 거의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단순 오락 영화로서 즐길 수 있는 요소는 많다.

우선 공간 배경 자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주선과 지구, 또 다른 행성을 오가는 세 히어로의 모험과 위치를 바꿔가며 펼쳐지는 액션은 '마블은 마블이다'라는 말을 되새기게 한다. 이를 위해 총 54개의 세트와 1천벌 넘게 준비했다고 한다.

박서준이 연기한 안왕자가 사는 알라드나 행성의 모습은 색다른 재미를 준다. 이곳은 말 대신 노래와 춤으로 소통하는 행성으로, 형형색색으로 차려입은 이들이 뮤지컬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이 작품이 할리우드 진출작인 박서준은 노래 실력을 뽐내고, 캡틴 마블과 춤도 춘다. 악당 님-벤(재위 애슈턴)의 침략에 맞서 검술 액션을 선보이기도 한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캡틴 마블과의 이색적인 관계 덕에 임팩트는 큰 편이다. 한국 배우가 마블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수현, '이터널스'의 마동석에 이어 박서준이 세 번째다.

BTS 정국, 美 '팰런쇼' 출연... "다양한 장르 소화하고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7일(한국시간) 미국 N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출연해 신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 무대를 꾸몄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밝혔다.

정국이 지난 3일 새 솔로 앨범 '골든'(GOLDEN)을 발표한 이래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를 미국 지상파 TV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지미 팰런은 정국의 신보, 솔로곡 '세븐'이 기록한 스포티파이 역대 최단 10억 스트리밍 달성 기록, 미국 음반산업협회 플래티넘 인증 등을 소개했다.

정국은 이에 "자신감은 있었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아미(방탄소년단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미가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새 앨범명 '골든'에 대해 "저와 황금은 연관이 크다.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이 다 '황금' 같아서 앨범 이름을 고민할 때 '골든'밖에 생각이 안 났다"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국은 터널을 연상시키는 황금빛 조명 아래에서 스탠딩 마이크를 활용한 '스탠딩 넥스트 투 유'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는 다음 날인 8일에는 미국 NBC 대표 아침 프로그램 '투데이 쇼'(TODAY)의 '시티콘서트 시리즈'(CitiConcert Series)에 출연해 현지 야외 공연을 한다.

tsl@yna.c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1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유안진 님의 '지란지교를 꿈꾸며' 시편을 온종일 가슴에 담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웃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홍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 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영원이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 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 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품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론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

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정이라 하면 사람들은 관포지교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친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듯이 나 또한 끝없는 인내로/배풀기만 할 재간이 없다. 나는 도를 닦으며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내 친구도 성현 같아 지기를 바라진 않는다. 때로 나는 얼음 풀리는 냇물이나 가을 갈대 숲 기러기 울음을 친구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우정을 제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흰 눈 속 참대같은 기상을 지녔으나 들꽃처럼 나약할 수 있고 아침 같은 양보는 싫어하지만 이따금 밀리며 사는 아량도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명성과 권세, 재력을 중시하지도 부러워 하지도 경멸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보다는 자기답게 사는 데 더 매력을 느끼려 애쓸 것이다.

우리가 항상 지혜롭진 못하더라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진 않을 것이다.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해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애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되, 미

친 듯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 같아서 요란한 빛깔도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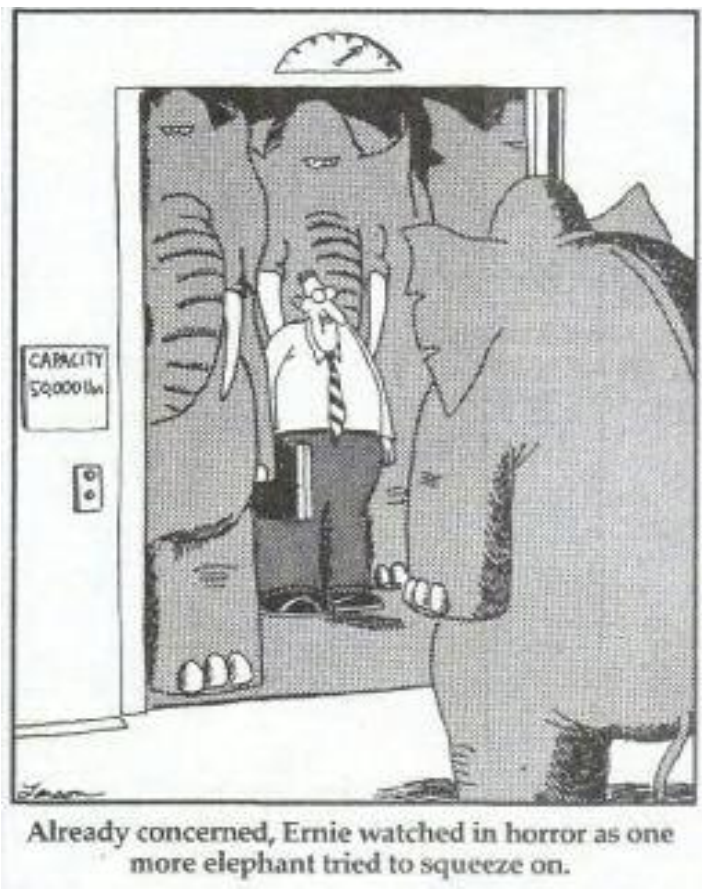
나는 반닫이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아침 창문을 열다가, 가을 하늘의 흰구름을 바라보다가, 까닭 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며, 그도 그럴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는 때로 울고 싶어지기도 하겠고, 내게도 울 수 있는 눈물과 추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추억이 있으나, 늙는 일에 초조하지 않을 웃음도만 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눈물을 사랑하되 헤치지 않게, 가지는 멋보다 풍기는 멋을 사랑하며 냉면을 먹을 때는 농부처럼 먹을 줄 알며, 스테이크를 지를 때는 여왕보다 품위 있게, 군밤을 아이처럼 까먹고 차를 마실 때는 백작보다 우아해 지리라.

우리는 풍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 나무처럼 일생을 춤계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모

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격려하리라.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특별히 한 두 사람을 사랑한다 하여 많은 사람을 싫어하진 않으리라. 우리가 멋진 글을 못 쓰더라도 쓰는 일을 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듯이, 약점도 안쓰럽게 여기리라.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의 꽃을 사서 그에게 들려줘도 그는 날 주책이라고 나무라지 않으며 건넌목이 아닌 데로 찾기를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게다.

나 또한 더러 그의 눈에 눈곱이 끼더라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녀 뒤통이나 신사다움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유유함을 느끼게 될 게다.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려나, 여로를 버티어 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피주는 불빛이 되어 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홀연히 오테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壽衣)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코끝이 찡해지고 옷깃 세우는 11월에서서 온종일 유안진 님의 시편을 가슴에 담고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코끼리는 생각치 말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코끼리는 생각치 말라. 인지認知언어학자의 책제목이다. 책 제목치고는 난해한데, 책에서 인용한 글이 눈에 띄었다. 신문기사 중 한 구절만 인용한다.

...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표지에는 검은 실루엣이 그려져 있는데, 제목을 본 뒤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코끼리를 떠올리게 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래도!" 해보야 소용없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이미 코끼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책 저자는 이 걸 언어의 '프레임' 이라고 설명한다. 말이 인식의 틀(프레임)을 정해버린다는 것이다.

코끼리를 생각치 않으려 한다면, 이미 코끼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구절에서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이런 걸 언어의 프레임이라 했고, 말이 이미 인식의 틀을 정해버린다는 거다. 말이 곧 인식認識이며 의식意識이라 해석해도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밝고 맑은 한국동요이다. 나역시 어릴적 목청껏 따라 불렀다. 부를 적에 나역시 파란색 빛을 받아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 되었던 거다. 한 구절만 소개한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것으로 파랑게 파랑게 덮인 속에서 파이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 파란 하늘색 노래를 부르면 파란색 하늘이 떠오른다.

하늘이 잿빛인 날이 있다. 흐린 하늘에 우중충한 날씨라면 마음마저 잿빛이 된다. 월요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맑고 밝은 상쾌한 마음을 가져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거다. 코끼리를 생각치 않고 있을적에도, 잿빛 프레임에 걸리는 터. 보스톤 가을하늘은 푸르고, 형형색색 단풍이 화려해야 마땅하다.

코끼리는 고생이 많은데, 보스톤 가을하늘은 푸르려야 마땅하다. 이것도 인식의 틀인가. 푸른 하늘이 보고싶다.

상牙象牙에 청옥을 입힌듯 하구나"(아가서 5:14)

허무개그라 해야겠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하던 말장난이라던데, 여러가지 비법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공대생 버전이라 하던데, 어렵지 않은듯 싶다. 코끼리가 들어갈수 있는 커다란 냉장고를 먼저 만들고, 그곳으

로 밀어 넣는 다는 거다. 보통은 가정용이나 사업용 냉장고 사이즈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냉장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냉동실이라 해야 할텐가. 냉장고보다 큰 것이 냉동실이라면 문제는 없을터.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꾸 '깜빡'하는 경도인지 장애, 치매 위험 신호일까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기억력, 인지기능 저하가 감되됐지만 치매는 아닌 단계로 고령, 기억력 장애 동반, 뇌 위축 소견 보일 때 조심해야 할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윤승재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자꾸만 무언가를 깜빡하는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치매와 정상 노화의 사이인 경도인지장애일수도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진행되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으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전두측두엽 치매 등 경과가 달라지는 질환이다.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변화다.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하는 것과 같이 몸으로 외우는 기억은 잘 유지되지만 사건을 기억하는 능력은 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능력 중 하나다. 그러나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기능의 감퇴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일반적인 치매로 진단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분명하게 객관적인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상태다. 즉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돼 있어 아직은 치매가 아닌 단계를 의미한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고위험군으로도 볼 수 있다. 정상 노인은 매년 1~2%만이 치매로 진행하지만, 경도인지장애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된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를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계이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형 경도인지장애와 비기억형 경도인지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기억형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주된 증상은 기억력 감소이나 일상생활은 유지능력은 정상인 경우를 말하며 비기억형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방향 감각이나 시공간기능, 실행기능 등과 같은 기억력 이외의 다른 영역의 기능장애가 주된 증상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경도인지장애는 모두 다양한정신행동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을 느끼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망상이나 환각 등을 겪는다.

경도인지장애를 진단하려면 환자 자신이나 가족이 인지기능장애를 호소하고 전반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는 뚜렷한 장애가 없으며 치매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는 뇌 자기공명영상촬영(뇌 MRI)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이용한 영상검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번의 영상 검사만으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1~2년에 걸친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위험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고령이거나 신경심리 검사 상에서 기억력 장애가 두드러질 때, MRI 등 뇌 영상 검사에서 뇌 위축 소견을 볼 수 있을 때,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65세 이상에서 발병한 알츠하이머병)의 유전형인 아포지질단백질 E4 형질을 가지고 있을 때 치매로 전환되는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성 위험인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 등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금연해야 하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뇌 손상에 예방해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윤승재

과장은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로 진행되는 확률이 높긴 하지만 모든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며 “치매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정상 노화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경도인지장애 정도를 유지하기도 한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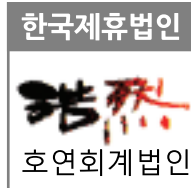
이어 “경도인지장애의 치료 목적은 증상 호전이라기보다는 치매로의 진행을 막는 것” 이라며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가벼운 건망증이 라도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자꾸 '깜빡'하는 경도인지장애, 치매 위험 신호일까”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BUSAN -
KOREA



- 2030 -
WORLD EXPO



@ NOV. 2023



YOU'RE INVITED
TO

2023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한인회

송년의밤

Holiday Party

DECEMBER

SATURDAY

16

AT 7PM

BOSTON MARRIOTT BURLINGTON

1 BURLINGTON MALL ROAD, BURLINGTON MA 01803

RESERVATIONS OR TICKET INFORMATION CALL:

예약 티켓문의 978 - 994 - 0306

Join us for a night filled of raffles, dancing and fun for all!

고국방문 항공권, 냉장고, 대형 스마트 TV 등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하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6. 요검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체지방검사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